

소연방과 중앙아시아

: 지역 정체성과 결정화, 그 역사적 수렴과 발산

丁世眞*

- | | |
|---|---|
| I. 서론 | B. 1924년 소련의 국경 경계 확정과 중앙 아시아 : 우즈베크-타지크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함의 |
| II.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실제 | IV. 소련 지도자들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 관점 및 정책의 수렴 |
| III. 소연방 초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특성 | V.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그 징후 |
| A. 소련 시기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역사적 함의 | VI. 결론 |

한글초록

1924년 소련 지배층은 중앙아시아에서 전격적인 국경 경계 확정을 통해 소위 ‘창조된 민족’을 만들면서 새로운 구성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이는 현 단계 중앙아시아의 분쟁 요소가 되었다. 소련 당국이 행했던 국경 경계 확정으로 개별 민족이 탄생하였고 개별 민족 정체성이 작동되었다. 즉 1991년 신생 공화국의 탄생은 1922년 소연방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과거에 정확히 민족 구분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국경 경계가 확정되었다. 1924년부터 시작된 국경 경계 확정은 1936년에 완결되었다.

현재 유라시아 지역, 즉 과거 소련 지역에서는 지금 거대한 국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민족 사이,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러한 분쟁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 지역에서 혼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본고는 제정러시아시기부터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까지 중앙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역 정체성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했다.

소련에 속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소련 전체 사회의 주체성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비록 국경 경계 확정으로 개별 민족 정체성이 발현되는 상황이 창출되었지만,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은 한계적인 지역 정체성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발전되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jsjstar2@hanmail.net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이는 각 민족 간의 영토적, 지역적 분쟁의 요소가 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에도 각 국가 간, 각 민족 간 분쟁의 요소로 발전된 측면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소비에트 정체성은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많은 부분 결부되었다. 그러나 소련 사회의 핵심은 러시아였으며, 러시아 인이 남겨준 유산은 소련의 유산과도 연관성을 지닌 채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주제어 : 소련,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 국경 경계, 타지키스탄

I. 서론

1985년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개혁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다. 소련은 체제 전환을 시작하였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서방의 정치적 가치를 받아들였다. 소련 체제는 무너졌지만, 소련에 속한 유라시아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은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못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구소련권에서 벌어지는 현재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 전쟁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2022년 8월 현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조지아와 2008년 전쟁을 치른 바 있다.

과거 구소련 국가는 아니었지만, 중앙아시아의 인근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2021년 여름 재집권하면서 중앙아시아 안보의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 러시아는 탈레반 사태에 가장 민감한 타지키스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안보에 어떠한 위협 요소가 벌어지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상황 이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끼리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4월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군사 충돌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키르기스스탄의 오쉬 지역에서 우즈베크 인과 키르기스 인 간에 유혈 폭동이 일어나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즉 21세기가 한참 지나간 이 시점까지 과거 소련에 속한 국가끼리

군사 분쟁이 발생하였다.

2022년 벽두에 카자흐스탄 국민의 시위가 발생해 CSTO (집단안보조약기구) 출범이후 처음으로 CSTO 평화유지군이 카자흐스탄에 전격 투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화 유지군 2,500명 중에 약 2,000명이 러시아 군인이었다. 러시아 주도의 평화유지군은 카자흐스탄에 파견되었는데, 이후 내정 상황이 안정되면서 곧 철수하였다. 국제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향후 러시아의 영향력 안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이 시위를 평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CSTO 평화 유지군이 급파되었기 때문이었다.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행동 범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도리어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 향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러시아는 최근 구소련 지역에 소련시기의 영향력을 복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국제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아시아는 과거부터 공동의 정체성을 지닌 공간이었고 문명사적으로 이슬람 문화권, 유목 문화 및 정주 문화의 교차로서의 역사적 삶의 양식을 지닌 지역이었는데, 왜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민족 간의 분쟁, 국가 간의 갈등 상황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까? 소련 해체의 역사적 사건이 새로운 역사적, 정치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변천이 현재의 중앙아시아를 설명하는 여러 논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서술될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권에서 지속적으로 영토 분쟁, 국경 분쟁, 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구소련 공화국에서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변동으로 말미암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공간은 B.C. 시기부터 현재적 시점에서의 민족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페르시아계와 투르크계가 그 공간에서 공동의 삶을 영위해 나갔다. 중국 북방과 시베리아 북방의 유목제국들과 원주민들의 역사적 관계가 있었으며,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류를 형성해 나갔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은 소련이 점령하기 이전까지는 민족 보다는 지역적 공동성과 그 공감대가 있었으며, 실크로드 문화의 형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고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본격 경략한 19세기 중반기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함의를 일별하는 시도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1924년 소련 지배층은 중앙아시아에서 전격적인 국경 경계 획정을 통해 소위 ‘창조된 민족’을 만들면서 새로운 구성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이는 현 단계 중앙아시아의 분쟁 요소가 되었는데, 본 논고의 주요한 분석 기제로 작용한다. 소련 내부의 민족 분쟁이었으며, 이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고는 2장에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에 관련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실재를 분석하고 3장에서 소연방 초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특성을 규명한다. 4장에서는 소련 지도자들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 관점 및 정책의 수렴을 논증하고 5장에서는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그 징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II.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 :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실제

중앙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스텝의 유목민족과 정착민족 간의 유목 문명과 정주 문명들 간의 상호 관계와 권력 교체가 반복되었다. 유목제국들은 중원의 정착 민족으로부터 강탈한 물자에 기반을 두면서 삶을 영위하였으며, 중원 국가가 약화되어 멸망하면 유목제국 또한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¹⁾ 중앙아시아의 문명사적 관점에서 유목 및 정주 문화는 핵심적인 역사적 인자였다. 모스크바국 시기 16세기 이반뇌제(재위 1533-1584)는 남부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16세기 중엽 카잔 칸국과 아스트라한 칸국을 1552, 1556년에 점령함으로써 과거 몽골이 러시아를 지배한 시대를 일컫던 그 유명한 용어인 ‘몽골의 멍에’(монгольское иго)를 드디어 벗어버렸다. 그런데 20세기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자들은 러시아는 일정 부분 몽골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았고, 몽골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여전히 역사적 논쟁으로 남아있지만 러시아가 1480년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16세기 중엽 몽골의 계승국가를 정복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건은 16세기이다. 카잔 칸국 등은 몽골의 후계 국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모스크바국은 제국의 세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 역사에서 제국의 시작은 표트르 대제(재위: 1682-1725)가 18세기 황제의 칭호를 받으면서 본격화되었다는 일반적 해석이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16세기 중엽에 러시아 제국 확장의 역사가 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러시아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때도 이반뇌제 시기였다. 러시아의 동쪽은 시베리아였다. 그의 통치 시기 모스크바국은 시

1) 양승조, 『러시아, 중국 그리고 근대 중앙아시아: 역사적 회고』, 신범식 외 세계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 010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25쪽.

비리 칸국을 점령했다. 1582년 10월 26일, 예르마크는 시베리 칸국의 수도인 카실리크로 입성할 수 있었다.²⁾ 이후 시베리아 지역 영토 확장이 뒤따랐다. 역사가들은 모스크바국이 의도적으로 제국 확장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적 자산 가치로 매우 높았던 모피를 획득하기 위해 시베리아 경략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시베리아 영토는 광대했다. 주지하듯 18세기 중엽에 제정러시아는 캄차카 반도까지 나아갔고 알래스카를 발견하고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베리아 국경을 완성했다.

러시아는 1864년에 북카프카스를 완전 점령하였고, 이후 중앙아시아 지배에 성공했다. 러시아는 이미 19세기에 남코카서스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중앙아시아 정복은 영토 확장의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 러시아는 대륙을 뛰어넘은 식민지 확장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인근 국경을 넘나들면서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그 절정은 19세기 중반이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경 경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는 이미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였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강대국의 구미에 맞게 식민지를 마치 도끼로 쪼개듯 멋대로 재단하면서 거주민들을 강대국의 의지대로 지배하는 패턴은 당시에 반복되고 있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고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통치가 종식되었다. 그 이전 유고 연방이 여러 국가로 나누어졌다. 이 과정 중에 과거 제국이 멋대로 국경 경계를 획정한 여러 일들이 현대 사회의 문제로 변했고 국경 분쟁 요소가 되었다. 연방은 다수 국가로 분화되었으며, 새로운 국가가 등장했다. 국경 문제가 수반되었다. 1991년 이후 신생국들은 국경 경계를 지배하고 경계를 짓고 주권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역 정체성규정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

2) 정세진, 김정기,곽성웅,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시베리아 인문학의학적 체계 구성 : 지역학적 통섭과 정책 공간 연계』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0-04), 11쪽.

시험대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로 관심을 가진 시기는 17세기 이후였다.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던 시점은 1675년이였다. 당시 러시아 사절단이 인도 델리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델리까지 가는 경로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속하는 부하라가 있었다. 사절단은 부하라를 통과했지만, 결국 델리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도시를 방문하게 된 셈이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본격 점령하기 이전 히바 칸국에 대한 군사 원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 칸국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 혹은 지배권을 가지고자 시도했다. 히바 칸국은 1511년 이래 우즈베크 민족 그룹의 왕조에 의해 통치되던 독립 국가였다. 페르시아가 1740-47년, 잠시 간접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다. 1830-1840년대에 영국 상품이 중앙아시아로 많이 유입되었는데, 러시아를 방문한 중앙아시아 칸국 상인들이 이 사실을 전해주었다. 러시아 정부는 히바 칸국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 러시아의 옌부르크 총독 겸 주둔군 사령관인 바실리 알렉세예비치 페로프스키(Vasily Alexeevich Perovsky, 1794-1857)가 히바 원정에 나섰다. 상업 통로의 확보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19세기 중반, 면화 수입량이 중앙아시아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직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에 대한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원정의 공식 목적은 칸국에 의해 포로로 잡힌 러시아 인을 구하고 상업 통로를 일정하게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였다. 전쟁의 원인은 러시아 노예 문제가 가장 컸다. 히바에서 노예로 일하던 러시아 인을 해방하는 일이 전쟁을 선택한 이유였다. 이외에 히바 칸의 카자흐 민족에 대한 개입이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³⁾ 러시아는 국경 분쟁의 종식을 원했다. 페로프스키는 니콜라이 1세의 승인으로 원정에 나섰다.

1830년대, 히바 칸국은 전략적·군사적, 상업적 우위를 놓고 중앙아시아

3) 광성웅, 『19세기 히바 칸국과 러시아제국의 외교관계 연구: 주요 외교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년 8월), 85쪽.

아에서 경쟁을 벌인 영국과 러시아 간의 거대게임의 대상이었다. 1839년 11월, 페로프스키는 군사 원정에 나섰다. 당시 그 원정에 함께 했던 병사는 약 5,000명이었다. 낙타도 대동하였는데, 무려 1만 마리 정도의 규모였다. 약 2천 마리의 말도 전쟁에 동원되었다. 러시아는 당시 영국과 소위 거대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영국도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⁴⁾ 영국이 제1차 아프간 전쟁(1839-40)으로 휘말린 시기를 활용, 러시아가 국경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도 히바 칸국 원정의 추동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원정은 재앙으로 끝났다. 따뜻한 옷도 없고 연료도 부족하고 열악한 무장 상태였던 러시아 군대는 기록상 가장 혹독한 겨울 중 하나에 직면했고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못했다.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 때문이었다. 원정대에 대한 지원도 바닥이 나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러시아 군대는 약 1,000명의 병사와 낙타 대부분을 추위와 질병으로 잃었다. 병사들 간에 눈병이 전염되면서 1840년 6월에 원정대는 오렌부르크로 복귀하였다. 히바는 정복되지 못했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1840년에 약 600명의 러시아 포로들은 고국으로 귀환했다. 러시아는 이후 19세기 중반기 카프카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중앙아시아 정복에 나섰다.

러시아는 18세기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가지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한참 이후인 1865년에 타슈켄트를 점령하고 이 지역에 소위 ‘투르키스탄 총독부’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배에 나섰다. 5월 17일 러시아 군대가 타슈켄트를, 5월 24일 호잔트를 점령했다. 러시아는 1867-1868년에 부하라 칸국에 대한 공격에 나서 사마르칸트를 장악함으로써 러시아와 부하라 칸국은 평화 조약을 맺었다. 1871년 실질적으로 부하라 칸국은 러시아에 복속되었다. 러시아는 1873년 히바 칸국을 점령하고 투르키스탄 총독부에 편입시켰다. 이후 페르가나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졌던 코칸드 칸국은 러시아 군대에 의해

4) *История России XIX - начала XX вв. Учебник для вузов.* (ред. Н.А.Федеров) (Москва: Зерцало, 1995), С. 415.

핵심지역을 상실했다. 1876년, 최종적으로 이 칸국은 복속되었다.⁵⁾ 부하라 칸국은 1920년까지 부하라 아미르 국으로 남아있었다.⁶⁾ 러시아는 1880년대 투르크멘 민족을 정복, 중앙아시아 전 지역을 복속하였다.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한 연도는 1887년이였다. 제정러시아는 1892년 지금 타지키스탄에 속하는 파미르 고원을 정복하면서 중앙아시아 점령을 완결하였다. 러시아국경, 즉 러시아 변경은 비로소 고정되었다. 러시아는 새로운 식민지 공간에 총독제를 형성하면서 통치 권리를 향유했다.

러시아는 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했을까? 1853-1856년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간의 크림전쟁은 다른 의미로는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그 험난했던 크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러시아는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러시아는 이 전쟁 이후인 1864년에 북카프카스를 점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관심을 돌릴만한 여유가 생겼으며, 중앙아시아 정복의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는 크림전쟁의 패배를 외교적으로 만회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거쳐 태평양에 도달한 시점보다 약 200년이 경과한 뒤였다.

전체적으로 18세기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에 결정적으로 균열을 일으킨 제국은 제정러시아였다. 러시아가 1860년대 중앙아시아를 본격 정복하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그 이후의 1924년 중앙아시아 국경 경계 확정까지의 반세기 동안 그 지역의 사회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⁷⁾ 이 지역은 소위 유라시아 제국사가 펼쳐진 공간이지만, 러시아는 특별히 민족주의 감정으로 충만한 국가였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메시아적 감정을 가지고 이웃 민족을 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러시아와 러시아정교를 언급할 때, 러시아는 ‘신성한 러

5)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Том 2. А.Н.Сахарова (Отв ред) (Москва: Проспект, 2010), С. 165.

6)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Учебник. А.С.Орлов, В.А.Георгиев, Н.Г.Георгиева, Т.А.Сивохина(Редь) (Москва: Проспект, 2008) С. 378.

7) William M. Mandel, "Soviet Central Asia," *Pacific Affairs*, Vol. 15, No. 4 (Dec., 1942), p. 389.

시아’(Holy Russia)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아시아에서의 메시아적 감정은 범슬라브주의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의 마지막 시기와 볼셰비키 초기에도 러시아인은 민족주의 감정을 타민족 통치에 활용하고자 했고,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자 애썼다. 슬라브 인의 전통성, 민족성은 러시아정교를 통해 발현된 측면이 많았다. 러시아는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였다. 리아사노프스키는 19세기 중반기의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⁸⁾

민족주의는 전설적인 과거, 구속복을 입은 현재,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적 미래의 의미이다. 러시아 민족은 주인에 종속된 순종적인 체스의 졸(卒)이다. 동시에 위대한 사명의 보유자이다. 러시아는 슬라브 민족의 집단적 공동체인 ‘슬라브돔’ (Slavdom)을 지닌 국가이며, 엘베강, 비인,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진군하는 운명을 가진 민족이다. 메시아적인 러시아는 니콜라이 1세와 정부의 보수적이고 합법적인 기원으로서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대칭되는 모험적, 공격적, 심지어는 혁명적인 대외정책을 요구해왔다.

19세기 중앙아시아 지도를 만든 핵심 국가는 러시아와 영국이었다. 영국은 인도를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까지 그 세력권에 두고자 했다. 러시아는 그 이외의 영토를 지배하고자 했다. 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거대게임을 벌였으며 경쟁한 국경선을 명확히 정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인도 변경 지역으로의 전진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양국의 방어선 경계는 ‘아프가니스탄 완충선’, 남쪽의 아무 다리야(Amu Darya), 그리고 그 북쪽 가장자리인 동부 파미르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출발하는 아무다리야 강이었다.⁹⁾ 아무다리야 강은 지역 경계 구성에 있어서 산맥보다도 더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강은 어떤 왕조가 어느 지역을 통

8) Nicholas V. Riasanovsky, *Nicholas I and official nationality in Russia, 1825-185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 137-138.

9) Sergey V. Golunov, “Border Security in Kazakhstan: threats, policie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18(2005), p. 65.

제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경계에 속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산맥이 경계를 짓는 데 더 적절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국의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힌두 쿠시(Hindu Kush) 산맥이 인도의 자연적 방어선의 경계로 보았지만, 통치 당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영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경 경계를 짓지 않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유라시아 지역의 세력 분포는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¹⁰⁾

20세기 초, 만주, 몽골, 신장,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방대한 전략적 완충 장치 지대라는 역사적 의미장을 구성했다. 투르키스탄, 부하라, 세미레치예(Semirechie), 히바(Khiva), 투르크메니아(Turkmenia) 등은 러시아 차르가 보기에는 인적 자원 및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충분히 발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던 공간이었다. 러시아는 이 거대 인구의 중앙아시아를 자체적으로 정립된 러시아식 지역 정체성으로 완벽히 통합할 수 없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었다. 그 결과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 제국으로의 통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허약했다. 러시아의 문화적 영향력은 카프카스에서 성취한 것처럼 중앙아시아에서는 강력히 발동되지 못했다. 러시아와 카프카스 국가와의 문화적 연대감은 비교적 끈끈했고 19세기에 그러한 경향이 형성되었다.¹¹⁾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필자는 특정 권역권, 혹은 특정 국가의 역사 정체성은 지역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상황에는 일련의 공통성, 공동성이 있다. 원래 피식민지 원주민, 즉 토착민들은 스스로 변별적이고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생성하기 위해

10) Golunov(2005), p. 65.

11) Kamoludin Abdullaev, "Emigration Within, Across, and Beyond Central Asia in the Early Soviet Period from a Perspective of Translocality," in Manja Stephan-Emmrich, Philipp Schröder(eds.), *Mobilities, Boundaries, and Travelling Ideas : Rethinking Translocality Beyond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Cambridge: Open Book Publishers, 2018), p. 72.

노력한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유한 정체성이 축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노스롭은 “토착민 정체성은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고 변경 가능하다”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¹²⁾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매우 특별한 공간은 페르가나 분지이다. 그런데 페르가나 분지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민족-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다. 독특한 ‘페르가나 정체성’이 존재했다. 그 어떤 왕조가 페르가나 분지를 독점하여 차지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민족 국가는 생성되지 않았다. 왕조가 등장하였으며, 봉건 체제가 형성되었다. 아디브 칼리드는 페르가나 분지에서 건국된 코칸드 칸국을 “여러 중개자 연결을 통해 주요 통치자 중 한 명에게 충성을 빚진 족장, 아미르, 장군의 집합체”¹³⁾라고 설명했다.

필자가 여러번 제기했듯이 소련 체제의 출범 이전에 중앙아시아는 공동의 정체성을 지닌 공간이었고 현재적 의미의 민족 정체성이 강력히 추동되지는 않았다. 근대 시기 중앙아시아는 칸국이 통치하면서 개별 영토에서 지도자들이 등장하며 통치하던 특색을 보여주었다. 민족 창출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은 3장에서 보듯 국경 경계 획정이 확정되면서 구성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역사를 문명사적 함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슬람, 실크로드, 투르크, 페르시아 문화의 집적체로서 지역적 함의가 설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크고 비옥한 곳은 페르가나 분지의 남쪽 경계이다. 이 지역은 인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양하지만, 정치 체제는 단일하였다. 즉 페르가나 정체성은 공동의 정체성, 혹은 공존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페르가나 지역 정체성은 다른 형태의 인종, 지역, 종교 정체성과 공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페르가나 분지는 독립적인 키르기스스탄, 우즈베

12) D. Northrop, *Veiled empire: Gender and power in Stalinist Central A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 17.

13) Adeb Khalid, “From noble city to People’s Republic : Reimagining Bukhara, 1900-1924,” in J. Lindsay(ed.), *Historical Dimensions of Islam: Essays in honor of R. Stephen Humphreys* (Armanjani, Princeton, NJ: Darwin Press, 2009), p. 202.

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구분되어 있다.¹⁴⁾ 과거 이 지역에 페르가나 정체성이 성립되어있었다면, 1924년 소련 당국의 중앙아시아 국경 경계 획정으로 페르가나 공동의 정체성에 균열이 일어났다.

Ⅲ. 소연방 초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특성

A. 소련 시기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그 역사적 함의

제정러시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에 대해 2장에서 다루었다. 그렇다면 소련 시기 지역 정체성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을까?

소련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연합 공화국의 성격을 가졌다. 이 과정은 소련 내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중앙아시아에서 더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구성 공화국에서는 민족 명칭을 통해 광범위한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즉 러시아 정체성, 아르메니아 정체성, 조지아 정체성 등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는 특정 민족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공동의 공간 정체성이 강력히 발현된 권역권 특징이 있다. 올위스의 언급이 중요한데,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창출된 민족명은 결과적으로 “소련 당국이 죽어있던, 혹은 사멸해 가는 중세의 지명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정치적 법령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각각의 민족명을 부여했다”¹⁵⁾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졌다고 언급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18년 5월,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당시 소비에트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토착 거주민의 정치 활동이

14) Madeleine Reeves, “Materialising State Space: ‘Creeping Migration’ and Territorial Integrity in Southern Kyrgyzstan,” *Europe-Asia Studies*, Vol. 61, No. 7 (2009), p. 1284.

15) E. Allworth, *The modern Uzbeks* (Stanford, CA: Hoover, 1990), p. 206.

결합되면서 볼셰비키 정부는 새로운 차원으로 중앙아시아 민족 구분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1920년대 볼셰비키의 대원칙은 국가 창설을 통해 소비에트 권력이 강력히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정책이 채택되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핵심은 소비에트 권력 형성이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다. 이 권력 유지를 위해 내전이 벌어졌으며, 적군의 승리로 볼셰비키 통치 기반이 마련되었다. 언어, 정치 엘리트, 문화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내에 자치 공화국이 형성되었고, 1922년 소연방이 출범했다.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남코카서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등이 소연방에 처음 합류한 4개국이었다. 남코카서스 공화국에 참여한 민족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 민족이었다. 이후 1924년부터 중앙아시아 구성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보치카레바는 “각 민족의 다양한 정치적 문화가 소비에트 권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고 강조했다.¹⁶⁾

소련 역사가들도 새로운 지역 정체성의 창출을 위한 용어를 창출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중앙아시아’(Soviet Central Asia)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는 전형적으로 중앙아시아 거주민과 문화 경향을 가리키는 상징적 용어인 ‘투르크’, ‘무슬림’, ‘페르시아’ 등과는 매우 이질적이다. 당국은 인위적 구성으로 중앙아시아 민족을 창출하기를 원했다. 소련 정부는 아무 다리야 강을 지나 투르크멘 평원을 가로지른 공간을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국경 지대로 산정했으며, 이를 구성공화국의 형태로 자의적 방식으로 소연방에 포함시켰다. 볼셰비키는 혹독한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연방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볼셰비키 세력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장악

16) И.Б. Бочкарева,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размежевани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1924 г.: причины и влияние на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регионе,” *Известия АлтГУ.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 и археология*. No. 2 (106) (2019), С. 22.

하지 못했다. 내전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세비키는 결국 1922년 연방을 구성했다. 소련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1924년 중앙아시아 거주민들을 개별 민족으로 나누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창조된 민족’(Invented Nation) 개념이다. 지도자들은 제정러시아의 소위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정책보다도 더 세련된 민족 분리 정책을 가동했다. 그것이 1924년 중앙아시아 국경 경계 획정으로 이어졌다.

불세비키는 특정 영토에서 새롭게 구성공화국으로 출범하는 데 있어 일련의 원칙을 세웠다. 특정 지역 내에서 다수 인구의 민족명으로 구성공화국의 영토로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즉 민족 단위 영토의 통일성을 국경 경계 획정에 적용하였다. 각 공화국은 민족 간 갈등을 줄이면서 소비에트 권력 강화를 최우선적인 통치 원칙으로 삼아야 했다.¹⁷⁾

국경 경계 위원회는 가동되었지만, 획정의 주체자는 소련 지도자들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 속한 3개 칸국, 즉 히바 칸국, 부하라 칸국, 코칸드 칸국에서 동거하면서 거주하던 타지크 민족은 역사적 고향으로 간주하고 있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상실했다. 이 도시들은 국경 경계 획정시 우즈베크 공화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도시에는 타지크 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상심은 매우 컸다. 타지크 인은 1991년 독립 이후에도 한때 이 도시들을 자국으로 귀속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키릴 노우르자노프는 역사적으로 “타지크 민족은 소위 ‘문화적 감수 분열’(cultural meiosis)의 결과로서 아리안 문화, 헬레니즘, 대 이란(Greater Iran), 페르시아-이슬람 문화, 투르키스탄 등과 같은 전형적인 복합적 문명의 연속을 통해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의 각 단계는 특정한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로 타지크 인의 집단적 지식 체계에 흔적을 남겼다고 강조했다.¹⁸⁾

17) A. Халид *Ислам после коммунизма. Религия и политик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10), С. 99.
 18) Kirill Nourzhanov, Christian Bleuer, *Tajikistan: A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Canberra: ANU Press, 2013), p. 35.

그런데 1924년 부여된 우즈베크 공화국의 명칭조차도 우즈베크 민족만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1924년 당시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내의 자치공화국으로 출발한 타지크 공화국은 1929년에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소련의 구성 공화국이 되면서 우즈베크 공화국으로부터 독립했다. 1936년 키르기즈 공화국이 러시아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했다. 국경 경계 설정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주요한 판단 근거로 부상하기도 했다. 불세비키는 새로이 창설된 민족 공화국의 경제 잠재력과 발전 수준이 민족마다 불평등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 페르가나 분지에서 당시 우즈베크 민족 인구가 더 많았던 오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오쉬는 이후 키르기즈 공화국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1991년 독립 이후 우즈베크-키르기즈 민족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¹⁹⁾

B. 1924년 소련의 국경 경계 획정과 중앙아시아

피터 B. 골든은 기념비적인 저서인 ‘중앙아시아사’에서 문명사적으로 중앙아시아 인들은 단일 지역 혹은 민족을 이룬 역사적 경험이 없다고 책의 서문에서 밝혔다. 즉 씨족, 부족, 신분, 지역과 종교에 중앙아시아인의 정체성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중첩되었다고 적시하였다. 동시에 유목민들에게 정치적 경계선은 결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²⁰⁾

1924년 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 국경 경계 획정이 전격 단행되었다. 창조된 민족이 등장했다. 우즈베크 공화국은 부하라, 히바, 코칸드 칸국의 수도를 할당받았다. 타지크와 투르크멘 거주민은 역사적으로 직접 통치했던 지역만을 할당받았다. 우즈베크 민족이 받았던 땅에 비해서는

19) Бочкарева(2019), С. 26.

20) 피터 B. 골든, 『중앙아시아사. 불가강에서 몽골까지』 이주엽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21), 15쪽.

좋지 못했다.²¹⁾ 즉 타지크와 투르크멘 민족은 경계 확정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필자의 관점으로 이 과정에서 가장 부각된 민족은 우즈베크와 타지크 민족이라고 하겠다. 이 두 민족의 국경 경계 확정의 과정과 함의는 무엇일까?

불세비키 혁명 이후 타지크 민족은 투르크스탄 자치공화국과 부하라 인민사회공화국에 속해있었다. 타지크는 1924년, 우즈베크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정식 구성공화국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우즈베크 공화국이 핵심 지역을 할당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국경 경계 확정이 이 민족들에게 주는 역사적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 중앙정부가 경계 확정을 주도하면서 개별 특정 민족별로 영토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스탈린은 유럽 제국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세우면서 사용한 국경의 인위적 조정과 거의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에는 당시 민족명으로 본다면, 우즈베크라고 명명될 수 있는 일단의 민족 그룹이 거주하였고 왕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타지크 민족도 매우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소위 우즈베크와 타지크 인이 동거하던 형태였다. 러시아가 코칸드, 부하라, 히바 칸국을 점령하던 당시 칸국 통치자는 우즈베크 민족 그룹의 일원이었다.

둘째, 국경 경계 확정으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각각의 개별 민족 정체성 형성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24년 이후 중앙아시아는 각 민족별로 구성공화국을 형성했다. 즉 중앙아시아 공간은 각 민족별로 해체되었다. 불세비키 세력은 범 투르크 정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소위 투르크 공화국 프로젝트를 실현할 가능성이 무엇인지 당시 고민했다. 그들은 영토 경계의 구획이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추세를 반영한다고 간주하였다. 당국은 각 공화국의 정치 엘리트들

21) Beatrice F. Manz, "Multi-ethnic Empires and the formul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6, No. 1(2003), p. 93.

통합하여 투르크 정체성을 기반으로 인구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 정책으로 토착민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족 간에는 정체성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각 민족에게 새로운 국가 공간이 형성되었고, 민족 정체성의 성장과 새로운 지역 민족주의가 배태되는 결과를 낳았다.²²⁾ 그들은 자신의 언어, 역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경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장려되었다. 과거 통치자들과 명망가들은 출신 민족별에 따라 개별공화국에 배정되었다. 언어 정책은 중앙 유럽 모델을 따라갔다. 공식적인 문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유럽식 모델을 따라 민족 언어 발전이 있었으며, 많은 민족 정책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전통적 방식처럼 민족 국가로 적용되었다. 교육 및 행정 관련 일이 공화국 언어로 표기되었다.

IV. 소련 지도자들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 관점 및 정책의 수렴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소련 시기 지도자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았던 관점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에 관련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첫째, 중앙정부는 중앙아시아를 후진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그런 관계로 이 지역을 새로 통합된 중앙 집중식 운송 시스템을 통해 농업과 공업 분야의 생산과 공급을 소련식 사회주의 현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했다. 이 시점부터 소비에트 현대화가 실제 작동되었다. 그 결과로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정치적 일관성은 약화되었다. 중앙정부는 각 공화국 내에서 재정착 실행 정책, 건물 프로그램, 광산 작업, 도로, 철도 정비 등 일련의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실행했지만, 이는

22) Бочкарева(2019), С. 26.

구성 공화국의 경계선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²³⁾

둘째, 소련 시기 연방 지도자들은 러시아 유럽 지역에 거주하던 러시아 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꾸준히 이주시켰다. 정부는 이를 거의 강요하면서 추진하였다. 당국은 중앙아시아 유목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유목 목축 지대의 거주민들의 생활 형태와 생활 방식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제거되어야 하는 문화 양식으로 간주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언했다. 지도부는 유목민 집단을 정착 사회로의 정착을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정당화하면서 현대적 제도의 설립, 문맹 퇴치를 위한 학교 건설, 현대 경제 및 국가 제도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²⁴⁾

셋째, 중앙 정부는 고지대 유목민들을 농업 지대로 이동시켰다. 특히 국경 근처에서 여러 국가사업이 각 구성 공화국의 민족 프로젝트에 해를 끼쳤다. 국경 한쪽에 있는 집단 농장에서 다른 국경 지대에 속한 토지에 대한 임대 행위가 벌어졌고, 관개용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토지 교환이 행해졌는데, 이는 사실상 국경선의 변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부가 유목민들을 정착 농업 지대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가동했기 때문에 고지대 유목민들은 ‘계획된 마을’로 재정착의 과정을 거쳤다. 그들은 1970년대까지 고지대에서 더 아래 계곡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여름마다 이주 행태가 자주 발생하여 인근 공화국의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수지와 운하 건설에는 공화국의 원래의 경계선이 무시되었다.²⁵⁾

넷째, 중앙 정부는 각 공화국에서 민족 정체성, 혹은 역사 문화 정체성이 강력히 발동되지 않도록 고유한 영토에 제한 정책을 가동하였다. 사실상 땅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땅은 민족의 거주지이며 역사이

23) Reeves(2009), p. 1285.

24) Matthias Schmidt, Lira Sagynbekova, “Migration past and present: changing patterns in Kyrgyz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7, No. 2(2008), p. 113.

25) Reeves(2009), p. 1285.

다. 영토는 원래 그 민족 고유의 영역에 속한다. 특정 민족의 역사 문화 정체성은 많은 부분 영토와 관련되어 있고 지역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다. ‘꼬레니자찌야’(коренизация)정책이 가동되었지만, 소련 당국의 정책은 각 개별 민족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지 않도록 펼쳐졌다. 소련은 연방 국가로 제도화된 다민족 국가였다. 소련은 국가 영토와 민족이라는 2개의 구성 요소 사이의 법적 불일치, 그리고 공간의 불일치 뿐 아니라 2개의 독립적이고 심지어는 양립하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 놓인 정치 및 사회문화 체제를 지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의 요소로는 영토 및 정치적 요소들, 다른 하나의 요소에는 개인적, 민족 문화적 요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소련의 국가 체제(nationality regime)는 그 체제 내에 존재하는 민족성(nationhood), 혹은 민족 정체성이 국가 내에 제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련 시기에 고유한 민족 정체성은 연방 내에서 그렇게 강조되어서 발현될 수 없었다.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일반 대중이 아닌 정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하향식(top-down)으로 제공되었다. 특히 관료주의에 물들었던 구공산지도자가 이 일을 맡았다. 그들은 다른 이익 집단과 나란히 자신들의 지리적, 지정학적 자산을 이용하여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결속력을 달성하고 권력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지원을 모색하였다.²⁶⁾ 이들은 소비에트 시민사회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던 시기 자민족 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중앙아시아 문화는 소비에트 시민사회라는 특별하고 거대한 공통의 정치 공간에 합류되었다. 중앙아시아 엘리트들은 소비에트 시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의 민족 문화를 새롭게 창달하지 못했으며, 그저 소비에트 문화에 적응되었다. 중앙아시아 엘리트는 소비에트 엘리트가 되었다. 그들은 소비에트 식 정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해나갔으며, 출세를 위해 소비에트 문화를 재빨리 흡수했다. 지역

26) Farkhod Tolipov, "Nationalism as a geopolitical phenomenon: the Central Asian case," *Central Asian Survey*, Vol. 20, No. 2(2001), p. 186.

정체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자신이 거주한 전통적인 아시아적 농업사회의 틀을 벗어났다.²⁷⁾

하나의 국가는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헌법을 갖추고 있는 체제를 말한다. 그런데 소련에 대해 언급할 때는 늘 체제(regime)라는 용어가 따라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어상으로 소비에트 체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소련 국가는 어떠한 국가일까? 이 연방 국가에도 다른 국가와 경계를 구분 짓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국경(border)이다. 영토 경계는 자치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집단성이 내포된 공간이다. 그 집단성은 영토 및 정치적 틀에 의해 구성된다. 즉 국가는 개념적으로, 인과적으로 모두 정치적 영역에 의존한다. 그런데 모든 영토 체제가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성이 적어도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토 체제 내에서 영토 통합성이라는 제도적 틀이 요구된다.²⁸⁾ 이런 차원에서 소련 체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구분하였고 소련 영토 내에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소련의 영토 정책은 최종적 성공을 얻었던 것은 아니다. 소련 해체가 그 해답을 주었다. 소련 내 많은 민족들이 영토와 주권, 국민을 가지는 국가로 출범하기를 원했다. 1991년 독립 이후에도 기존의 영토 경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지역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섯째, 소련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국경 개념을 상이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소련 유럽 지역에서 펼쳤던 정책은 유럽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동쪽, 즉 소련의 아시아 지역에서 부과된 정책은 완전히 이질적인 정체성, 즉 지역주의 특성으로 이들을 대했다. 소련이

27) Arunas Juska, "Ethno-political transformation in the states of the former USSR,"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 3 (1999), p. 540.

28) Rogers Brubaker,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Soviet Union and Post-Soviet Eurasia: An Institutional Account," *Theory and Society*, Vol. 23, No. 1 (1994), p. 55.

추구한 민족 정책은 특정 민족지학지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언어와 고유한 민족 특성들이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다.²⁹⁾ 중앙아시아 사회는 소련 체제에 순응적이었다. 무슬림이 문명에 뒤떨어진 이들이며, 더 진보된 러시아 문화를 수용했다는 평가가 소비에트 지도자들의 인식에 남아있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관점으로 전개된 소비에트 정책은 국가 및 사회 발전, 체제의 옹호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³⁰⁾

이러한 점에서 소련 체제를 이끌어간 지도자의 대 중앙아시아 인식과 지역 정책은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레닌의 민족 정책은 철저하게 꼬레니자찌야로 민족 자치였다. 개별 민족이 주체성을 지니고 민족 문화 및 민족 발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이런 점에서 레닌은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일정한 자치를 부여해주는 지도자였다. 스탈린의 민족 정책도 기본적으로 레닌의 정책을 이어가는 형태를 외형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만 자치를 부여한 스탈린의 민족 정책은 전체적으로 개별 민족에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삶의 정체성이 유목 문화권이었던 카자흐 인은 스탈린의 강제적 집단농장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 피터 B. 골든은 스탈린의 집단농장 정책을 “사적 농업과 사적 목축을 종식시킨 농업집산화와 유목민의 정착화 정책”으로 표현했다.³¹⁾

스탈린에 의한 소비에트 사회와 경제 정책은 이 지역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스탈린이 행한 집단농장 등의 경제적 행위는 폭력적 방식이었다. 그에 뒤따른 1932-1933년의 기아, 1930년대의 대숙청 등은 카자흐와 키르기스 민족의 유목 문화 전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스탈린 통치 하에 고려인, 독일인, 우크라이나 인, 체첸 인, 타타르 인들이

29) Manz(2003), p. 92.

30) Mark Saroyan, *Minorities, Mullahs, and Modernity: Reshaping Community in the Former Soviet Union* (Berkeley: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7), p. 248.

31) 피터 B. 골든, (2021), 291쪽.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이들 중의 많은 이들이 지식인들, 우상 파괴자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주요한 인적자원을 이룬 사람들이었다.³²⁾ 이 와중에 카자흐 인을 예로 든다면, 약 100만 명이 사망했다. 1930년 5월, 카자흐스탄 콜호즈가 전체 농장의 28.5%였는데, 1937년에 전체 농장의 97.5%가 콜호즈였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 운동 자체가 카자흐스탄에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정착 문화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재난이 발생했다.³³⁾ 개별 민족이 지니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 특성을 존중하지 않던 정책의 추진은 외형적으로 내세운 스탈린의 꼬레니자찌야 정책과 부합되지 않았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는 고르바초프였다. 그러나 소련 해체 직전, 고르바초프는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당시 러시아공화국의 옐친 대통령이 소련의 실세로 등장했다. 그의 영향력 내에서 소련은 해체의 길을 걸어갔다. 옐친은 러시아 민족국가 설립을 주장한 측면이 있다.³⁴⁾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의 핵심 구성공화국이던 러시아의 지도자였던 옐친에 의해 소련 해체가 결정되었다.

V.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수렴과 발산

소련의 당당한 일원이었던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정치적 함의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첫째, 국경 경계 획정이 소련 뿐 만 아니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도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2) Charles E. Ziegler, "Civil society, political stability, and state power in Central Asia: cooperation and contestation," *Democratization*, Vol. 17, No. 5 (2010), p. 802.

33)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서울: 퍼네기, 2004), 52쪽.

34) 최한우 (2004), 200쪽.

1992년 독립 이후 국경 분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사이에도 분쟁이 없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서쪽의 카라칼팍스탄은 동쪽 방향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으로 통합되지 않고 북부인 카자흐스탄, 혹은 남쪽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통합되었어야 그 경계가 올바르게 확정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1924년 이래 페르가나 지역에서는 ‘인클레브’(enclave), 즉 소위 ‘비지’ 지역이 등장했는데, 독립 이후 국가 간 분쟁요소가 되었는데, 국경의 위치와 국경 거주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부상했다. 각 정부에서는 소위 민족 국경을 더 강화하는 국가 정책을 펼쳤다.³⁵⁾ 소련 해체 이후 소련이 식민지 공간을 정복하고 확보하면서 형성된 국경 경계가 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페르가나 분지를 국경 경계로 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3개국이 ‘비지’ 문제와 복잡한 국경선으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어왔다. 국경 확정의 여러 사항들, 특히 비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소련 시기 국가 영토는 행정 영토 개혁으로 구성되었다. 민족의 인구 분포가 공화국 형성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다.³⁶⁾ 분쟁 사태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경계 확정의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논고에서는 국경 경계 확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을 논증하기가 애매하지만, 독립 이후 실제적인 실례를 통해 여전히 이 지역의 분쟁 사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오쉬’ 지역에서는 우즈베크 인 등 비 키르기즈 인이 소수 민족이 되었다. 독립 이후 오쉬에서

35) 소련 해체 이후 중국-키르기스스탄 국경 문제는 양국이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중국은 중앙아시아 각 국가와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 측 이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Christopher McDowell, “Death to Sarts!: History, injustice and a complex insult in Central Asia,” *Anthropology Today*, Vol. 28, No. 6 (2012), p. 22.

36) Sergey V. Golunov, “Border Security in Kazakhstan: threats, policie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18(2005), p. 37.

우즈베크와 키르기스 민족 간에 여러 차례 대형 유혈 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이 사망했다.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획정 경계도 잘못 규정된 측면이 있었다. 양국의 비지에서도 독립 이후 간혹 분쟁 사건이 이어졌는데, 급기야 2021년 양국은 전투를 벌이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4월 28일 키르기스스탄 남서부 바트켄(Batken) 주와 타지키스탄 북서부 수그드(Sughd) 주 국경 지대에서 군사 충돌이 이틀이나 지속되었다. 양국 정부의 공식적 발표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5월 2일,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는 36명, 부상자는 183명이었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은 5월 6일, 군인 6명을 포함, 총 19명이 사망하고 87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 사상자 수가 더 많았다. 국경지대의 양국 군인들이 상대편 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이어 유탄발사기와 박격포로 공격하면서 교전이 일어나고 건물 수십 개가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다. 민간인 피해 또한 야기됐다. 양국은 서로 상대편에서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³⁷⁾

이번 사건은 국경 지대에서의 물 분쟁으로 초래되었다. 즉 이스파라(Isfara) 강 상류의 물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으로 촉발됐다. 양국은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해왔다. 국경 분쟁이 항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양국이 공동 이용하는 저수시설 물이 있는데, 키르기스인들이 불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다는 것이 타지크 인의 주장이었다. 타지크 인들이 전봇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 키르기스 주민들이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 충돌이 벌어졌다. 총격전으로 번지며 군사 충돌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중재에 나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특히 양국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37)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국경 충돌... 병력 철수 및 정상 회담으로 약속,” 『이머릭스 러시아 유라시아판』 2021.5.14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1585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2021&search_month=05&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2¤tPage=1&pageCnt=10 (검색일: 2022.6.30).

분쟁 조정에 나섰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안보 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이다. 양국 충돌 이틀 후인 2021년 4월 30일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대통령과 이번 분쟁에 관련하여 논의했다.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im-Jomart Tokayev) 대통령도 4월 30일, 카자흐스탄이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1일 토카예프는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으며, 5월 19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하고 라흐몬 대통령과 관련 분쟁에 대해 상의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양국 980km에 달하는 국경 가운데 400km 구간의 영유권이 아직 정확히 경계로 정해지지 않았다. 자파로프 대통령과 라흐몬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두산베에서 정상회담을 하였고 이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라흐몬은 양국 충돌과 관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반면, 자파로프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³⁸⁾ 양국 국경에서의 충돌은 오랜 기간 동안 국경 지대에서의 긴장 고조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독립 이후 양국이 상호 전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3일간 짧은 기간의 교전이었지만, 양국 전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사상자는 민간인이었다.³⁹⁾

이번 상황은 대체적으로 국제관계 입장에서 봉합되었지만, 이러한 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4월 30일 양국 대통령은 전화 통

38) <https://www.rferl.org/a/kyrgyz-president-deadly-border-clashes/31331575.html> (이머릭스 뉴스 브리핑, 검색일: 2022.6.30).

39) <https://www.rferl.org/a/majlis-podcast-making-sense-of-the-clashes-at-the-kyrgyz-tajik-border/31246182.html> (검색일: 2022.6.30).

화로 휴전 및 병력 철수에 합의한 바 있다. 5월 1일, 양국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휴전과 병력 철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국경 분쟁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5월 18일 키르기스스탄 악사이(Ak-Sai) 마을과 타지키스탄 보루흐(Vorukh) 사이에 범 집행과 국경 수비를 위한 합동 검문소를 설치했는데, 그 직전 양국은 또다시 충돌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자국민 3명이 타지크 인들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결국 키르기스 시민들을 구타하는 데 연루된 타지크 관리들과 시민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합의했다.⁴⁰⁾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소련 시기의 역사적 유산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국경 경계를 획정하면서 소련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소련 지도자들은 정치적, 군사적, 전략적 우위를 정당화하는 계기를 가졌다. 개별 민족 정체성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⁴¹⁾ 국민 국가 개념은 소련 해체 이후 비로소 이 지역에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국경은 국제 원조 정책에 의해 강화된 안보 체제를 정당화하여 영토에 대한 권력을 투사한다. 국가는 국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추동하며, 국경 공동체가 인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집단적인 국경 수비대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는 국경 안보에 대한 두려움을 투영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⁴²⁾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계 지역인 사마르칸트와 페르가나 분지도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즉 타지크 엘리트들에 의해 부각된 주장이었는데, 일부는 타지키스탄 국가 방어선을 부하라, 사마르칸트까지 현재의 국경선 바깥 경계까지 연장하여 규

40) <https://www.rferl.org/a/kyrgyzstan-tajikistan-agree-to-joint-security-controls-along-disputed-border-/31261592.html> (검색일: 2022.6.30).

41) Ali Banuazizi and Myron Weiner, *The New Geopolitics of Central Asia and Its Borderlan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 11.

42) Anna Matveeva, "Divided we fall ... or rise? Tajikistan - Kyrgyzstan border dilemma," *Cambridg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017, 1: #94D4RC, <https://doi.org/10.22261/94D4RC>, p. 1.

정하였다. 이는 마치 중앙아시아 전 지역이 과거 타지크 민족 거주지임을 의미한다.⁴³⁾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타지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속하는 영토를 탈환하는 지정학적 전략의 토대가 된다. 쉬린 헌터는 “중앙아시아 역사는 제국, 부족, 지역에 관련된 담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 개념, 민족-국가의 개념은 지역, 민족-문화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권위라는 3각관계로 규정된다. 투르크어 사용 국가와 페르시아어 사용 국가 간의 오래된 분쟁은 사마르칸트, 부하라 지역에서 지속되어 왔다.⁴⁴⁾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 도시들이 반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독립 이후에도 이러한 분쟁이 끝나지를 않는다. 소련이 만들어놓은 역사적 유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타지키스탄 내전(1992-1997)도 국경 경계 획정으로 인한 지역 정체성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전은 타지키스탄 국내에 만연한 지역주의 현상과 인종적 민족주의가 발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내전에 여러 정파가 참여했다. 특히 반군 세력을 이끈 집단은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IRPT), 타지크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라스토헤즈’(Rastokhez), 서방 민주주의의 가치를 목표로 했던 ‘타지키스탄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Tajikistan), 동부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파미르인 권리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랄리 바다흐샨’(Lali Badakhshan)이었다. 물론 이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강력한 반군 세력으로 참여하였지만, 내전의 직접적 원인은 지역주의였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에 반대한 인종적 민족주의도 내전의 원인이었다.⁴⁵⁾

국경 경계 획정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인 후잔트는

43) 정세진, 『우즈베크-타지크 민족 기원론 소고: 독립 이후의 역사적 논쟁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 23권 1호(2013), 238-239쪽.

44) Shireen Hunter,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Westport, CT: The Washington Papers/168, 1996), p. 11.

45) 이에 대해서는 정세진, 『타지키스탄 민족 정체성 연구 -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8권 1호(2008), 263-270쪽 참고.

타지키스탄 영토 내로 포함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독립 당시 타지크 인의 내면에는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인식 및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배경이 내전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었다. 국경 경계 획정으로 타지키스탄 중심 지역이 아닌 거주지에 살던 이들의 소외감은 컸다. 그러한 영향으로 타지키스탄 지역주의가 발생했다. 내전 당시 ‘종족-지역적 민족주의’(ethno-regional nationalism)가 강하게 부상했다. 반 우즈베크 민족 분위기가 독립 이후 지역주의가 강하게 부상함으로써 내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타지키스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반군 입장에서 반 우즈베크 민족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근원적으로 따져본다면, 개별 민족 간의 민감한 영토 분쟁과 피해 의식은 1924년부터 본격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VI. 결 론

협의적 공간에서 본다면,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투르크,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 속에서 발현되었다. 그것은 공동의 지역 정체성이었다. 공동의 역사적 문화 속에서 축적된 권역권의 특성을 보여왔다. 제정러시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투르키스탄 지역 정체성이었다. 투르키스탄 총독부를 제정러시아 정부가 출범시켰다. 제국이 주체가 된 지역 및 권역권의 창출이었다. 식민지 도시였으며, 식민지 공간 지대의 특성으로 구현되었다. 제국의 피식민적 경험 체계로 중앙아시아는 수용되었다. 소련 시기에는 당국의 강제적인 국경 경계 획정이 지역 정체성을 추동한 측면이 있었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는 국경, 영토, 경계를 부여받고 민족국가가 되었다.⁴⁶⁾

46) Andrew P. Owsiak, "Signing Up for Peace: International Boundary Agreements, Democracy, and Militarized interstate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6,

1924년 10월, 중앙아시아 구성 공화국이 형성되었다. 제정러시아 시기에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지배했지만, 소련 사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인을 소련에 합류시켜 지배력을 가졌다. 1924년 먼저 우즈베크, 카자흐, 투르크멘 공화국이 출범했다. 1929년에 타지크 공화국이, 1936년에는 키르기즈 공화국이 소련 구성공화국이 되었다. 비록 연방이었지만 구체적 민족에 국가 명칭이 부여되었다. 소비에트 당국은 민족 이름을 부여했으며, 민족 정체성을 수여해주었다. 민족 내 지역의 방언은 언어로 성문화되었다. 국가, 혹은 민족사도 새로이 창출되었다. 도시와 마을은 이전에 있던 것과 유사하지 않은 이름과 경계를 가졌다. 소련은 제국주의 관점에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중앙아시아를 규정하지 않았다. 즉 분리된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는 거대한 땅(land-mass)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지역이다.⁴⁷⁾ 국경 경계 확정 과정은 국가적 자아 인식과 결정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소비에트 권력에 위협으로 인식되던 투르크 민족 프로젝트로부터 각 민족 정체성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를 통찰해본다면, 소련 정부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 국가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는 당연히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련 지도자들이 행했던 국경 경계 확정으로 민족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는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국가로 이어졌다. 1991년 신생 공화국의 탄생은 1922년 소련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과거에 정확히 민족 구분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국경 경계가 확정되었다. 중앙아시아 이외에서는 이미 역사 속에서 특정 민족명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중앙아시아는 민족-정치 형태의 이름으로 민족명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공간 지대에 속했다. 1936년에 키르기즈 공화국이 러시아연방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중

No. 1 (2012), p. 56.

47) G. E. Wheeler, "Soviet Policy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Affair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Vol. 31, No. 3 (1955), p. 318.

앙아시아 국경 경계는 완결되었다. 이는 1860-70년대 타슈켄트, 코칸드, 부하라, 히바 칸국 등을 정복하고 1880년대 가장 늦게 투르크멘 민족을 정복한 제정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에 이어 소련판 완전정복 시리즈의 완결판이었다.

국경 획정의 특성은 ‘인위적 조정’이었다. 소련식 통치 목적에 가장 편리한 방식이 작동되었다. 그것이 민족 창조 개념으로 포장되었다. 타지크 인은 역사적 도시를 상실했다는 인식을 가졌고 이는 타지크인의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추동했다. 우즈베크 공화국은 1924년 국경 경계 획정에 있어서 비교적 혜택을 많이 받은 구성공화국에 속했다. 이 공화국에는 광범위한 투르크 민족 계가 포함되었으며, 타지크 계의 많은 인구가 이 공화국에 속해있어 지역-민족이 일치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관계로 소련 당국이 결정했던 중앙아시아 국경 경계 획정에는 여러 문제점을 가진 채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국가가 영토를 나누었던 페르가나 지역 정체성도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녔다. 소위 ‘페르가나 정체성’은 여러 민족이 혼재하는 공간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국경 경계 획정 당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영토 할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 독립 이후 ‘비지’ 지역을 중심으로 국경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련의 통치적 유산과도 결부되어 있다.

소련 시기 중앙 당국은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를 후진적으로 규정하는 일면이 있었다. 즉 생활 및 문화 양식에서 개선되어야 할 공간으로 규정했다. 소련 당국에 의해 창출된 민족 정체성은 인위적으로 부과되었다. 중앙아시아 인들은 소비에트 문화, 사고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였다. 그런 점에서 소련 시기 벌어졌던 분리주의 운동 및 민족주의 운동에 중앙아시아 국민 대부분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피식민적 질서에 놓였던 중앙아시아 인은 완전한 복종을 하든지, 혹은 수동적인 순종을 보여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 인은 소련이라는 거대

사회의 위계질서를 수용하였으며, 강요된 질서 그 자체를 용인하였다. 가장 성공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가들은 러시아어를 매우 잘 구사하였다. 그들은 소비에트 문화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화된 중앙아시아 인은 자신들이 고향이나 출신 지역을 떠나 학업에 매진하거나 소련 군대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부분적으로 차별을 느끼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소련 전체 사회의 주체성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비록 국경 경계 획정으로 개별 민족 정체성이 구현되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은 주체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이로써 각 민족 간의 영토적, 지역적 분쟁의 요소가 되었으며, 소련 해체 이후에도 각 국가 간, 각 민족 간 분쟁의 요소로 발전된 측면이 있었다.

소비에트 시민 사회 정체성은 소련 제국이 추구한 이념적 요소였으며, 중앙아시아 사회에도 이 분위기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진보, 사회주의, 그리고 발전이라는 소비에트 식 담론이 중앙아시아 인의 사고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전체적으로 소비에트 정체성은 중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많은 부분 결부되었다. 20세기 소련의 특성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문화 정체성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핵심 문화 요소였으며, 소비에트 시민사회가 소련 국민들에게 강조되었던 문화적 기준점이었다. 그러나 소련 사회의 핵심은 러시아였으며, 러시아가 남긴 유산은 소련의 유산과도 연관성을 지닌 채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곽성웅. 「19세기 히바 칸국과 러시아제국의 외교관계 연구: 주요 외교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년 8월.
- 김대성. 『중앙아시아 사회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 양승조. 「러시아, 중국 그리고 근대 중앙아시아: 역사적 회고」, 신범식 외. 세계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010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서울: 진인진, 2015.
- 정세진. 「우즈베크-타지크 민족 기원론 소고: 독립 이후의 역사적 논쟁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3권 1호(2013).
- 정세진. 「타지키스탄 민족 정체성 연구 -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권 1호(2008).
- 정세진, 김정기, 곽성웅.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시베리아 인문학의 학적 체계 구성 : 지역학적 통섭과 정책 공간연계』.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20-04.
-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상)』. 서울: 펴내기, 2003.
-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하)』. 서울: 펴내기, 2004.
- 피터 B. 골든. 『중앙아시아사. 불가강에서 몽골까지』. 이주엽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21.
- Abdullaev, Kamoludin. “Emigration Within, Across, and Beyond Central Asia in the Early Soviet Period from a Perspective of Translocality.” in Manja Stephan-Emmrich, Philipp Schröder(eds.). *Mobilities, Boundaries, and Travelling Ideas: Rethinking Translocality Beyond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Cambridge: Open Book Publishers, 2018.
- Allworth, E. The modern Uzbeks. Stanford, CA: Hoover, 1990.

- Banuazizi, Ali and Weiner, Myron. *The New Geopolitics of Central Asia and Its Borderlan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 Brubaker, Rogers.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Soviet Union and Post-Soviet Eurasia: An Institutional Account." *Theory and Society*. Vol. 23. No. 1. 1994. pp. 47-78.
- Golunov, V. Sergey. "Border Security in Kazakhstan: threats, policie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18. 2005. pp. 31-58.
- Hunter, Shireen. *Central Asia Since Independence*. Westport, CT: The Washington Papers/168, 1996.
- Juska, Arunas. "Ethno-political transformation in the states of the former USSR."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 3. 1999. pp. 524-553.
- Khalid, Adeb. "From noble city to People's Republic: Reimagining Bukhara, 1900-1924." in Lindsay, J.(ed.). *Historical Dimensions of Islam: Essays in honor of R. Stephen Humphreys*. Armajani, Princeton, NJ: Darwin Press, 2009.
- Mandel, M. William. "Soviet Central Asia." *Pacific Affairs*. Vol. 15. No. 4. 1942. pp. 308-409.
- Manz, F. Beatrice. "Multi-ethnic Empires and the formul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6. No. 1. 2003. pp. 70-101.
- Matveeva, Anna. "Divided we fall ... or rise? Tajikistan - Kyrgyzstan border dilemma." *Cambridg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017, 1: #94D4RC, <https://doi.org/10.22261/94D4RC>, p. 1.
- McDowell, Christopher. "Death to Sarts': History, injustice and a complex insult in Central Asia." *Anthropology Today*. Vol. 28. No. 6. 2012. pp. 22-24.

- Northrop, D. *Veiled empire: Gender and power in Stalinist Central A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 Nourzhanov, Kirill, Bleuer, Christian. *Tajikistan: A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Canberra: ANU Press, 2013.
- Olimov M. A. and Olimova, Saodat. "Ethnic Factors and Local Self-Government in Tajikistan," in Valery Tishkov, Elena Filippova (eds.). *Local Governance and Minority Empowerment in the CIS*. Budapest: LGI Books/Open Society Institute. 2002.
- Owsiak, P. Andrew. "Signing Up for Peace: International Boundary Agreements, Democracy, and Militarized interstate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6. No. 1. 2012. pp. 51-66.
- Reeves, Madeleine. "Materialising State Space: 'Creeping Migration' and Territorial Integrity in Southern Kyrgyzstan." *Europe-Asia Studies*. Vol. 61. No. 7. 2009. pp. 1277-1313.
- Riasanovsky, V. Nicholas. *Nicholas I and official nationality in Russia, 1825-185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Sabol, S. "The creation the Soviet Central Asia: the 1924 National Delimitation." *Central Asian Survey*. No. 14. 1995. pp. 225-241.
- Saroyan, Mark. *Minorities, Mullahs, and Modernity: Reshaping Community in the Former Soviet Union*. Berkeley: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7.
- Schmidt, Matthias, Sagynbekova, Lira. "Migration past and present: changing patterns in Kyrgyzstan." *Central Asian Survey*. Vol. 27. No. 2. 2008. pp. 111-127.
- Tolipov, Farkhod. "Nationalism as a geopolitical phenomenon: the Central Asian case." *Central Asian Survey*. Vol. 20. No. 2. 2001. pp. 183-194.

Wheeler, G. E. "Soviet Policy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Affair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Vol. 31. No. 3. 1955. pp. 317-326.

Ziegler, E. Charles. "Civil society, political stability, and state power in Central Asia: cooperation and contestation." *Democratization*. Vol. 17. No. 5. 2010. pp. 795-825.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국경 충돌.... 병력 철수 및 정상 회담으로 약속.” 『이머릭스 러시아 유라시아판』 2021.5.14.(검색일: 2022.6.30).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No=315856&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2021&search_month=05&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2¤tPage=1&pageCnt=10

<https://www.rferl.org/a/kyrgyz-president-deadly-border-clashes/31331575.html> (이머릭스 뉴스 브리핑: 검색일: 2022.6.30).

<https://www.rferl.org/a/majlis-podcast-making-sense-of-the-clashes-at-the-kyrgyz-tajik-border/31246182.html> (검색일: 2022.6.30).

<https://www.rferl.org/a/kyrgyzstan-tajikistan-agree-to-joint-security-controls-along-disputed-border-/31261592.html> (검색일: 2022.6.30).

Бочкарева, И.Б. “Националь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размежевани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1924 г.: причины и влияние на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регионе.” *Известия АлтГУ.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 и археология*. No. 2(106). 2019.

История России XIX - начала XX вв. Учебник для вузов. Москва, 1995.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Том 2. Отв ред. Сахарова, А.Н. Москва: Проспект, 2010.

История России. Учебник. Редь. Орлов, А.С. Георгиев, В.А.

Георгиева, Н.Г. Сив охина Т,А. Москва: Проспект, 2008.

Масов, Р.М. *Истор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науки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Душанбе: Ирфон, 1988.

Халид А. *Ислам после коммунизма. Религия и политика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10.

<Abstract>

Soviet Union and Central Asia : Regional Identity and Crystallization, Historic Convergence and Divergence

Jung, Sejin*

In 1924, the Soviet ruling class created a so-called 'created nation' through demarcation of borders in Central Asia, creating a new constituent republic. However, this has become an element of conflict in Central Asia at this stage. The demarcation of borders carried out by the Soviet authorities led to the creation of individual ethnic groups and the operation of individual ethnic identities. In other words, the birth of a new republic in 1991 began with the forma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22. In the past, border boundaries were established in areas where there was no precise ethnic division. The delimitation of the border, which began in 1924, was completed in 1936.

In the present Eurasia region, that is, in the former Soviet Union region, there is now a huge national conflict. These conflicts are occurring between nations. Why are these conflicts taking place in Eurasia?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os situation in this region, this paper trie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broad regional identity of Central Asia from the imperial Russian period to the post-Soviet period.

The identity of the Central Asian region belonging to the Soviet Union did not function as the subjectivity of the entire Soviet society. Although the delimitation of borders created a situation in which individual

www.kci.go.kr

* HK Professor of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national identities were expressed, there was a clear limitation in which Central Asian national identities were not developed independently due to limited regional identities. This became an element of territorial and regional disputes between different peoples, and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re was an aspect that developed into an element of conflicts between each nation and each ethnic group. Overall, Soviet identity was in large part tied to Central Asian regional identity. However, the core of Soviet society was Russia, and it can be said that the legacy left by the Russians is still connected with the legacy of the Soviet Union.

Key words: Soviet Union, Central Asia, Regional Identity, Border Boundary, Tajikistan

[논문투고일: 2022. 07. 12]

[심사의뢰일: 2022. 07. 28]

[게재확정일: 2022. 08. 25]